

신규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자세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각종 교육이 한창이다. 그 중 안전교육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처음부터 안전문화를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 안전마인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달에는 신규근로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첫 출근의 마음가짐

인간에게는 자신 및 부양자의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절대적인 사명이 있다. 이와 같은 생계의 수단으로서 직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이란 힘들고 지루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일은 우리의 생활을 즐겁고 풍족하게 하여 주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 자기 생활이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회사나 공장은 우리에게 각각의 직장에서 그 역할에 응하는 작업을 완전하게 수행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각 근로자에게는 주어진 임무가 있다. 그 임무가 크건 작건 또는 그 자체가 중요하건 그렇지 않건간에 자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이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이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세상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곧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를 위하여 진력하는 것은 사회봉사이며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배우려고 하는 안전과 보건은 생산직에 종사하거나 사무직 등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기초적인 것들이다.

우리가 작업현장에서 임무에 충실할 때 우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우리 회사의 경영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며 안전관리자(담당자), 보건관리자(담당자)가 매일 같이 우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체크해 나가겠지만 우리의 몸에 대한 건강유지는 스스로가 완전하게 책임진다는 각오로 근무하여야 할 것이다. 사고는 항상 우리 주위의 조그마한 곳에서부터 발생된다. 예컨대 근로자가 옷에 너풀거리는 조그마한 천 조각을 버렸더니 이것이 잘못되어 피땀 줄을 타고 기계와 함께 돌다가 전기의 접촉지점에 엉겨버려 감전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와 같이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가 무서운 재해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지금 실시되는 안전보건 교육은 최소한의 첫 걸음이며 초보적인 것으로 우리가 직장에 들어와서 직접 취급하는 기계나 원재료들의 위험성 및 그 바른 취급 방법 또는 작업순서 등에 대해 실지교육을 받게 된다. 실지교육과 직장에서의 훈련은 매일의 작업 속에서 극히 필요한 것이다. 실지교육시 우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 (1) 가벼운 기분으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배운다. 주의력을 집중하여 진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배우야 한다.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거나 마치 못해서 배우는 것은 교육내용을 이해하거나 외울 수 없다.
- (2) 모르는 것은 그때 그때 질문하여 알 때까지 듣는

다.

공장, 직장에서는 배워서 익힌 것을 토대로 하여 작업을 하게 되므로 충분히 알지 못하면 사고를 일으키거나 불량품이 나오게 되어 자신은 물론 직장의 동료, 선배, 상사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이 있을 때에는 알 때까지 질문하여야 한다.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③ 배운 것은 모두 외운다.

직장에서는 배운 것은 모두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단 배운 것은 모두 자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외우며 자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④ 실제로 하여 보고 고침을 받으며 요점을 외운다.

머리 속으로는 다 알 것 같으면서도 실제 작업을 하여 보면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해 보면서 선배나 상사로부터 모르는 것은 배우고 바르게 하는 방법을 빨리 외어 자기의 것으로 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⑤ 반복하며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작업에 숙달되기 위해서는 머리 속에서만 그려보아서는 안 되고 몇 번이고 반복하여 연습을 하는 것이 훌륭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

근로자에게 훌륭한 기능이 있다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사람에게 신체는 자본이므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고 명랑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직장에서는 부상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이다. 질병이나 부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고 위험한 행동이나 잘못된 작업방법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제일이다.

몸에 좋지 않은 곳이 있으면 정신이상을 일으키기 쉽고 또한 기분이 상쾌하지 않을 때는 행동에 잘못이 일어나기 쉽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는 몸을 조절하고 쓸데없는 근심을 하지 않고 권태를 극복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

좋은 기계라도 틀리게 사용하면 다치거나 고장을 일으키게 된다. 숙련된 사람이라도 상태가 나쁠 때에는 판단의 잘못도 있을 수 있다. 재해발생 후 조사해보면 원인이 발견된다. 대부분 사람 쪽에 원인이 있으며 이는 바른 작업방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던가 근심이 있어 주의를 집중할 수가 없었다는 등의 좋지 않은 일이 숨어 있다. 우리는 안전보건을 잘 배워 몸에 익히고 안전작업에 힘써야 한다.

2. 작업에 임하는 자세

우리가 항상 안전하고 경건하게 작업을 계속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한다.

① 규칙을 지키는 생활을 토대로 튼튼한 몸과 밝은 마음을 계속 갖도록 하는 것이다. 몸의 상태가 나쁘거나 마음이 불안정할 때에는 부상을 야기하기 쉽기 때문에 근로자는 튼튼한 몸과 작업에 흥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운동부족, 수면부족, 과식 등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작업시에는 활력과 상쾌한 기분으로 하여야 하며 만약 몸의 상태가 나쁠 때에는 상사에게 상의하도록 한다.

② 작업에 임할 때는 잡념을 갈던지 한눈을 팔지 말고 자기 일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시작전에 공구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작업방법이나 기계, 공구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배운바 대로 활용하여야 한다.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의 시작이 된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곧 상사에게 의논하여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잘 알지 못하는 기계나 작업에는 참견하지 말아야 하며 재미로 또는 한번 해본다는 식으로 흥내를 내다가는 큰 부상

을 당하게 된다.

부상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 것도 좋지 않지만 부상을 경시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올바른 지식을 몸에 익혀 위험을 피하며 배운대로 안전작업방법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작업종료의 벨이 울릴 때까지는 작업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곧 끝난다는 해이된 마음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는 예는 많다.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뒷정리를 하는 습관을 갖는다. 자기가 사용하기 기계나 공구의 점검과 손질, 주의의 정리정돈, 마개나 나사의 조임, 용기의 뚜껑을 열어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것이 볼트라고 할 때 볼트 자체는 생산의 전공정에서 중요한 부품이 아니더라도 그 볼트가 빠졌을 경우 당해 제품은 완성품이라고 불릴 수 없다. 결국 자기가 만들고 있는 작업이 그 자체로서는 하찮을지라도 다른 부품과 하등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근로자는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직장과 가정과의 관계

가. 개인생활과 재해

사람은 어떤 특정한 일에 정신을 빼앗기게 되면 그 외의 다른 일에는 열중할 수 없게 된다. 가정에서의 크고 작은 일들이나 회사에 출근시의 일들, 휴일에 있었던 일들은 직장생활의 안전보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생각되나 사실은 산업재해사고의 대부분이 직장 외부의 생활속에서 가지고 들어와 야기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다. 인간의 두뇌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유쾌하고 괴로운 기억들은 깨끗이 지워 버리고 유쾌하고 즐거운 기억만을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해 휴일동안의 불유쾌한 일들이 작업도 중자꾸 생각이나서 임무에 몰두할 수 없게 되면 무심코 기계 속에 손을 넣어 버린단든지, 발을 헛디더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불화, 통근길에서

의 옥신각신, 불유쾌한 기분 등을 그대로 작업속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잘못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하루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는 아침은 다음과 같이 하여 주기 바란다.

나. 여유 있는 출근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기 위해 집을 나올 때까지 시간이 30분인 사람, 45분인 사람 또 60분인 사람 등 여러 가지라고 생각되나 60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이 좋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사, 옷을 바꾸어 입으며 출근준비를 하자면 60분 정도의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침착성을 잃어 덤비다가 통근도중에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또한 회사에도 착할 때까지의 시간도 여유가 있도록 계산하여 집을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걷는 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버스를 탄 시간 등을 생각하여 10분정도 빠르게 회사에 도착하도록 집을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도 한번쯤 출근시간을 계산하여 회사까지의 소요시간에 무리가 없는지 생각해 주기 바란다.

시간의 여유가 있더라도 가지고 가야 할 물건이 없다면, 신발이 이상하다던가, 누구와 입씨름을 했다는 등으로 기분을 상한 채 집을 나오거나, 통근차 내에서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어 그것을 생각하면서 출근하게 되면 작업 중에도 신경이 쓰여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부드럽지 못하거나 주의력이 둔해져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그러나 사고를 방지한다는 의미로 모든 일을 체념하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에서도 직장과 같이 몸의 주변을 질서있게 정리하여 어둠속에서도 물건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올바른 작업방법

가. 작업방법의 개선

각 직장 작업부서에서 택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작업방법은 선배근로자들의 오랜 동안의 경험, 실패의 반성에서 얻은 결과와 많은 검토가 쌓여 결정된 것으로 어느 특정 개인의 생각만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작업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작업방법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여지가 많은 것이다.

나. 개선방법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작업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켜 실시해 버리는 것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는 지금까지의 작업방법에 익숙해진 연후의 개선 이라야 하며 종래의 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의 개선 이라야 한다.

작업에 처음 임하는 근로자는 먼저 자기 작업을 완성하여야 하며, 정해진 작업방법을 정확하게 지켜지게 된 연후에 개선점을 생각하는 단계로 옮겨질 수 있다.

그러나 개선에 대하여는 상사나 동료들이 찬성할 때 비로소 실행에 옮겨야 한다. 작업의 첫걸음은 표준작업의 실행과 숙달이며 작업은 인간과 물건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물건측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대비가 완벽하더라도 인간측의 행동에 결함이 있게 되면 사고가 일어나며 건강의 유지가 어렵게 된다.

재해는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야기됨이 자주 거론된다. 그 대부분이 정해진 표준작업이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표준작업방법이 없을 때는 상식 밖의 행동, 정신력의 분산이 야기된다.

자기 체력을 과시하는데서 오는 부상도 많다. 과거의 체력만을 믿고 무리한 작업을 하다 다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는 반드시 정해진 바른 작업을 해야 한다. 동작은 피로와도 관계가 깊다. 불량한 자세와 움직임은 피로를 촉진시키며 어깨나 팔에 『결림』이 생기게

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다. 또한 나쁜 동작을 방치하면 나쁜 습관이 되어 만성적 지병적인 건강장해를 일으킨다. 바른 동작을 습관화하여야 한다.

또한 빠른 작업이 기술자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착각하고 어떻게든 작업을 빠르게만 진행시키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유능한 기술자란 자기에게 부여된 제품을 안전한 방법으로 아무런 결함이 없이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빨리 많은 제품을 만들어 냈으나 많은 양의 결함이 나타난다면 이는 기술자라 할 수 없다. 